

# ‘춤 허용업소’ 조례 배후에 주류업계 로비 의혹

### 구의원 대상 조직적 물밑 로비...공청회 주도하기도 일부의원 “한 의원 수차례 발의 너무 이상해서 반대”

일반 음식점을 유흥업소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 광주시 서구·북구의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 배경에는 지역 주류 유통업계의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로비대상이 됐던 구의원들 사이에선 광주의 주류 유통업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이 서구와 북구는 물론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동구지역 구의회 등을 대상으로 물밑 로비에 나섰다는 말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 범위로 조례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로비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구의회를 비롯한 주류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봉고사건을 낸 클럽 등이 대량의 주류를 소비하는 업소라는 점에서, 클럽과 주류유통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 동구·서구·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2016년 2월 일반음식점

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자, 광주지역 일부 주류유통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구의원 등을 상대로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을 위한 로비활동에 나섰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구의회는 같은 해 6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그해 7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서는 150㎡ 이하 영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서구의회는 부칙으로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며 대상 범위를 대폭 넓혔다. 결국 지난달 봉고사건이 난 ‘코요테 어글리’ 등 일부 업체들은 이 조례 덕분에 ‘음식점 내에서 불법으로 춤을 허용한 사항’에 대해 진행중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실상 이중 혜택을 봤다. 당시 서구청 내부에서는 일부 주류유통업자들이 구의원들과 유착을 통해 조례 제정에 힘을 썼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서구 관계자도 “명백하게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유착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조례 발의부터 시행까지 한달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당시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업소(코요테 어글리)는 면책까지 되는 등 이중 특례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동구의회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논의 끝에 무산됐다. 당시 구의원들이었던 A씨는 동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춤 허용 업소 지정’ 조례를 수차례나 발의해 의혹의 대상이 됐다. 전영원 광주동구의회원은 “특혜성 조례가 서구와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며 “나 역시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동구지역 클럽들이 혜택이 많은 서구 상무지구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등의 압박 성화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기열 광주동구의회원은 “다른 유흥주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끝까지 반대했

다”면서 “A의원이 평소와 다르게 수차례 발의해 너무 이상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해당 조례를 제정한 북구에선 조례 제정 전에 열린 주민공청회에 실제 지역 주류판매유통업자가 직접 나서 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업자는 공청회에서 “북구는 장사가 안되고 주류납품도 북구만 38% 정도 떨어졌다”면서 “북구에선 ‘먹고’, ‘마시고’는 되는 데 ‘놀고’가 안되기 때문이다. 반면 서구는 주류판매량이 70% 정도 증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서구에선 (춤 허용 조례 제정에 따라)2개 업소에 허가가 났다”며 북구의 춤 허용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명을 요구한 북구의회원은 “2017년 3월 처음 조례가 발의됐을 때 의원 19명 중 5명만 찬성했는데 3개월 후에는 찬성이 14명으로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주류업계가 일부 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조례를 발의한 각 구의원들은 주류유통업계와의 연관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양파 피클 드시고 농가 도우시다 7일 광주 북구청 로비에서 열린 사랑나눔 양파피클 판매 행사에서 북구청 청년간부회의 회원들이 직접 만든 양파피클을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북구는 양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양파 소비촉진과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이번 이웃돕기 자선 모금 청년마켓 행사를 마련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대법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췌어도 종료 10분내면 운전중 수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이뤄졌더라도, 운전종료 후 10분 이내에 이뤄진 음주운전측정수치는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척지법 형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

이 맞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5분 사이에도 0.009% 남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정씨는 11시 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 55분께에 음주측정을 했다. 재판에서는 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10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경찰 ‘문대통령 살해 예고’ 글 올린 일베회원 추적

### 게시판에 권총 사진 올려

인터넷 커뮤니티에 권총 사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은 “지난 3일 ‘일베저장소’(일베) 게시판에 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한 일베회원 지난 3일 새벽 2시40분께 게시판에 권총과 실탄 여러 발이 담긴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을 연달아 게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

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문구를 올렸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다른 네티즌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속기록,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일베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게시물에 첨부된 권총 사진은 2015년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신안 삼태도 해상서 외국선원 실종...목포 해경 수색

신안군 삼태도 해상에서 외국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지난 6일 신안군 삼태도 서쪽 16km 해상에서 실종된 외국선원을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 중이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실종된 루마니아 국적의 A(28)씨는 라이베리아 선적 11만 t급 컨테이너선 B호에 승선 중이었다.

지난 6일 새벽 1시께 부산 남항에서

출항한 B호에 승선 중이던 3등 항해사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보이지 않았고, 신안군삼태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밤 9시 30분께 목포해경이 무전 청취를 통해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조난신호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인 B호의 항적을 역추적해 수색중이며, 다른 중소형 경비함정은 추락 의심 해역 삼태도에서 흥도 북서쪽까지 집중 수색 중이다. /목포=김준서 기자 kjs0533@

## 국밥집서 술 마시고 창고 불지른 30대 긴급 체포

### 라면·쌀 훔친 혐의도

광주서부경찰은 “술을 마신 식당의 창고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A(34)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국밥집에서 술을 먹은 뒤 식당 식자재 창고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식자재 창고에서 라면 8봉지와 쌀 4kg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건설현장 일용직인 A

씨는 이날 식당 창고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라이터로 소금포대를 덮고 있는 부피포에 불을 붙이고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화재는 바로 목격된 인근 상인과 식당 주인의 신속한 진화로 창고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만 입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인근 PC방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으며, A씨는 체포당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경찰 범인 검거 모습 보고 싶어 허위 신고 20대 징역형



○...경찰관이 범인을 찾는 장면을 직접 보고 싶다는 허위 신고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7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무영)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28)씨는 지난해 8월 새벽에 울산의 한 주택에서 112로 전화를 해 “도둑으로 보이는

남자가 도주 중”이라고 허위 신고 했으며, 도둑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가려는 경찰관들에게 “도둑이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재차 거짓말을 해 1시간 넘게 헛수색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재판부는 “A씨가 허위신고는 물론 사기와 절도죄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고, 소재도 불분명 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 호남동 대원 빌딩 **총별**

# “ 특별분양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분양가 470만원 ~**

## “ 추천 업종 ”

- 1** 높은전용률 **확트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 2** 불링장,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